

여야, 개헌·과학벨트 격돌 불가피

임시국회 개최 합의 불구 쟁점 즐비

무상복지·구제역도 난제… 정국 안갯속

여야가 6일 전통 끝에 오는 14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입장차가 완연한 쟁점들이 즐비해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 80여개는 별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대포폰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외에도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구제역 등이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2월 국회를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여부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담화에서 개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한나라당도 8~10일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개최하면서 무엇보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주류 세력인 천이(천이명박)계 일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총을 통한 당론 결정 과정이 필요없다면서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천이계 최대모임은 '함께 내일로'는 6일 개헌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세물이'에 나섰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헌특위 구성 등 여당의 어떤 논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가 6일 브리핑에서 "한나라당 의총도 있고 영수 회담도 있으니 조금 지켜보겠다"고 밝혀, 개헌이 2월 국회의 쟁점으로 부상할 것임을 예견해 했다.

이런 가운데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

구조 개편 논의에 대해 여당 친이계는 물론 여당 일부 인사도 찬성한다는 설(說)마저 계속 흘러다니면서 논란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벨트 유치전도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됐다. 이 대통령이 신년담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과학벨트의 총청권 유치에 대해 "공약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말하면

서 논란이 증폭하고 있으며 여야는 물론 여야 내부에서도 지역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치권을 흔미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총청 정치권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제2의 세종시'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당장 이날 이회창 대표 등 자유선진당 관계자들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만나 항의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충청·대구·경북간, 충청-호남간 과학벨트 유치전도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됐다. 이 대통령이 신년담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과학벨트의 총청권 유치에 대해 "공약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말하면

게임이 진행 중이어서 과열음이 국회 논의 과정에 그대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진화·시위법과 미디어렙 관련법, 한·EU(유럽연합) FTA(자유 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 법안들과 함께 무상복지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구제역 사태도 미감한 이슈다.

물가·전세대란과 아동·구출작전 논란, 대포폰 국정조사를 놓고서도 여당의 매서운 공세가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잘 해 봅시다" 한나라당 김우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회동에서 14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간 여야 영수회담도 가능하면 이번 주 내 열릴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연합뉴스

셈법 다른 여야 영수회담 주내 열릴까

靑 "서두르지 않겠다"

孫 "날치기 사과부터"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6일 회동,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이번 주 내에 영수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청와대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과열음이 나고 있다.

우선 청와대는 영수회담과 관련해 민주당에 정식으로 의사와 타진하고 협의를 벌인다는 방침이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와대는 민주당이 지난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대한 사과를 영수회담의 전제로 제기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손학규

대표의 비서실장인 민주당 양승조의

원과의 통화에서 "영수회담을 금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영수회담이 함께 논의된 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운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 대표는 영수회담과 2

월 국회 정상화는 별개 사안이며 임시국회도 (지난해 한나라당의 예산

안 강행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및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손 대표의 셈법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이번 주 내에 영수회담이 열리기 어려운 것 아니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2월 국회가 열리 전에 개최되는 영수회담에서)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그렇게 해줘야지만 여야 관계가 냉철처럼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 강행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및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손 대표의 셈법이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이번 주 내에 영수회담이 열리기 어려운 것 아니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2월 국회가 열리 전에 개최되는 영수회담에서)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

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그렇게 해줘야지만 여야 관계가 냉철처럼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십·설득력 향상 최고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① 교육기간 : 2011년 3월 11일(금) ~ 2011년 12월 16일(금) : 1년과정

② 교육목표

대중 및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교육을 통해 리더 및 최고지도자로서 품위를 갖게 하는데 있음. 교육기간 중 월우회 친목도록을 위한 포럼조직

③ 모집인원 : 50명 선착순

* 지원대상 : 각종 기관·사업자, 전문직 및 직능별종사자, 남앞에서 두려움 없이 말을 잘하고 싶은 사람(내성적인 성격), 기타 일반인, 직장인, 주부, 학생 등

④ 교육과정

대학 및 연설기법, 리디오/TV 스피치 오령, 각종 행사 사회 진행요령 및 축사, 주례사 등 각종 선거 후보자 연설문 낭독 오령, 발성 수련 운동 및 어휘력 개발 연습,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대화법, 짐에 된 리더십을 키우는 법, 성공면접 30 조건에 답변방법 등

⑤ 교육요령 : 실습 위주 교육(실습70%, 이론30%)

* 지도교수 직접 시범 실습 후 교육생 100% 완성시까지 실습 위주 지도

⑥ 원서교부 및 등록기간

- 등록기간 : 2011년 1월 31일(월) ~ 3월 3일(목)

- 등록시간 : (월) ~ (금) 10:00 ~ 17:00

- 등록장소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과 교학과 (호실관 4층)

⑦ 등록방법 (수강료 : 1년 400,000원)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화신청 후 수강자 명의로 입금

- 예금계좌 : 광주은행 134-107-109843(예금주 : 광주대 평교원)

⑧ 수료 후 특전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 수여, 각기업체 학원 단체

스피치 강사 및 각종 행사 사회 진행자 출전

* 1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시)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인증회장 발급

자격증 취득기회여부(2단계 수료시)

각 학문학원 및 학원개설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강사 출전

연수과정 충 국가인증 취득기회부여(1급까지)

■ 문 의 : 062)530-3873~5

■ 지도교수 : 010-2611-1171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sle.jnu.ac.kr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TEL (062) 670-2167, 2168

지도교수 : 010-5692-9998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은 인간처세에 있어 필수 학문이다!

관상학: 조선대학교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동강대학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나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남관계의 결과물이다. 순자법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낫놓고 그자도 모른다"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족사주란? 우주의 천리를 풀어인 귀족사주! 시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죽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이를 부여진 귀족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2011년 상반기 신입생 모집(15주간)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 초급 매주 화요일 19-22시 150,000원 230-7700-2

평생교육원 관상 고급 매주 금요일 19-22시 150,000원

동강대학 사주명리초급 매주 수요일 19-21시 10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사주명리초급 매주 목요일 19-21시 100,000원

● 조선대 등록 - 2월 1일부터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록

- http://www.chosun.ac.kr/lifelong

- 광주은행 004-100-00152(예금주 : 조선대 평생교육원)

● 동강대 등록 - 2월 1일부터 ~전화 등록후 입금 또는 직접등록

장학특전 노령자, 장애자, 생활수급자, 복수과목 감면 신청 등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문의: 각 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0-3644-7232

박근혜 자택서 복지 정책 청사진 몰두 손학규 백담사서 재보선 등 정국 구상

■ 대권 예비주자들 설연휴 어떻게 보냈나

김문수 택시기사 체험·천정배 복지시설 방문

차기 대권을 향한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은 설 연휴 때도 계속됐다. 올해 상반기 이후,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된다. 점에서 예비 대권주자들은 정국 구상을

들과 함께 무상복지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차기 대권을 향한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은 설 연휴 때도 계속됐다. 올해 상반기 이후,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된다. 점에서 예비 대권주자들은 정국 구상을

들과 함께 무상복지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차기 대권을 향한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은 설 연휴 때도 계속됐다. 올해 상반기 이후,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된다. 점에서 예비 대권주자들은 정국 구상을

들과 함께 무상복지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차기 대권을 향한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은 설 연휴 때도 계속됐다. 올해 상반기 이후,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된다. 점에서 예비 대권주자들은 정국 구상을

들과 함께 무상복지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차기 대권을 향한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은 설 연휴 때도 계속됐다. 올해 상반기 이후,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된다. 점에서 예비 대권주자들은 정국 구상을

들과 함께 무상복지 논란 등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차기 대권을 향한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은 설 연휴 때도 계속됐다. 올해 상반기 이후,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된다. 점에서 예비 대권주자들은 정국 구상을